

“천막결사, 한국불교 변화시킬 장대한 물결 되길”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난관 봉착한 불교계에 큰 의미
말하기 쉬워도 실천은 어려워
그 첫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 필요
시작했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국불교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가자와 신도가 갈수록 줄고 불교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위례천막결사는 참다운 불교, 참다운 수행자로 돌아가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합니다. 이 뜻깊은 결사가 잘 회향돼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장대한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5일 단양 대흥선사에서 만난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은 위례신도시 상월선원에서 진행되는 천막결사 동참 대중들의 원력과 실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찬사했다.

“덕숭산 중턱의 만공선사 부도에는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 번 생각하는 것이 한 번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난방도 안 되는 협소한 천막에서 하루 한 끼에 목욕을 지키며 목욕도 않고 승복 한 벌로 한 철을 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곧 초발심이고 부처님 마음입니다.”

월탄 스님은 경허 스님으로부터 시작해 만공·보월·금오·월산 스님의 선법을 잇는 선사다. 조계종 중회의원과 중회의장, 조계사·법주사 주지 등 종단의 대소



월탄 스님은 “천막결사 대중들은 본래면목을 깨달아 반드시 도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를 맡아왔고 전국의 많은 선원에서 정진했다. 그럼에도 스님은 지금까지 ‘정화육바구’로 더 유명하다.

1950년대 전통불교 회복을 기치로 펼쳐왔던 정화운동이 1960년 11월 대법원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6명의 비구들이 대법원에 들어가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24살이었던 월탄 스님도 이 자리에 있었다.

당시 월탄 스님은 그 자리에서 35cm 가량 자신의 배를 함꼐 가르자 창자가 쏘아져 나왔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 갔고 사를 받았동안 사경을 헤매다 의식이 돌아왔다. “한국불교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결행한 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크게 바뀌었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활로는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서 보입니다. 한국불교가 살려면 정법이 바로 서야하고 그러려면 법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기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수개화(鐵樹開花)’ ‘암상생련(巖上生蓮)’의 이치입니다. 쇠로 된 나무에 꽃이 만발하고 바위 위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거룩한 불사라는 얘기입니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도 위법망구의 결사를 통해 고려불교를 일신했고 송광사의 16국사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의 원력이 지속된다면 한국불교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월탄 스님은 한국불교가 신뢰를 넘어 스님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을 역설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님이 존경받는 사회에서 부처님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지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은 이 몸동이를 어떻게 편안케 할 것이냐에 온통 매달려 미친 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까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향락주의가 참다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간파하셨고, 우리 스님들은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불자들이 감동하고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월탄 스님은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공덕과 함께 이번 결사를 실질적으로 이끈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칭송했다.

“해방 이후 우리 불교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무원장도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승 스님은 일각에서야 뭐라 하든 내부적으로 큰

허물없이 임기를 두 번이나 지내며 불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백담사 무문관에서 두 안거를 나더니 이제는 수행으로 한국불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탄 스님은 ‘만일 누가 잠깐동안 고요히 앉기만 해도 항하(恒河)의 모래수만큼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 칠보탑은 결국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正覺)을 이룬다’는 문수보살의 계승을 인양하며 선수행의 수승함과 이번 결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번 위례천막결사에 대한 걱정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의도했던 것처럼 앉긴 이제 위례천막결사가 불교계 안팎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재에 들어가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의 업장은 매우 두터워서 그 안에서 여러 번수가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설명 죽더라도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라도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9명 스님들은 자신들의 원력을 잊지 말고 부디 그곳에서 반드시 본래면목을 깨달아 큰 도인되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결사 대중이 꼭 새겼으면 하는 당부의 마음을 계승에 담아 전했다.

百尺竿頭座底人(백척간두좌저인)
雖然得入未爲眞(수연득입미위진)
百尺竿頭進一步(백척간두진일보)
十方世界是全身(시방세계시전신)
백척간두 끝에 앉은 사람이 비록 진리를 얻었다고 하나 참은 아니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시방세계와 내가 둘 아닌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단양=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위례천막결사 대중들, 제적원 제출

11월4일 금곡 스님에 전달
“청규 어길 경우 중단 떠나”

위례천막결사에 나서는 상월선원 대중들이 스스로 정한 청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를 어길 경우 중단에서 제적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총무원에 제출(시진)했다. 상월선원 대중들을 대표해 진각, 호산, 도립 스님은 11월4일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예방하고 상월선원 대중들의 제적원과 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규를 어기고, 위례천막결사를 회향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조계종에서 제적된다. 이 자리에서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대중들은 위례천막결사를 올곧이 회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제적원을 제출하게 됐다”며 “청



규를 지키지 못한 대중은 스스로 중단에서 떠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는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부대중은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호하겠다”고 화답했다.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은 11월11일 오후 상월선원에서 입제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행정진을 시작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원행 스님 “위례천막결사 사회에 큰 울림”

“위례, 신도시포교 상징 자리매김”

■1면에서 이어짐

이날 불불법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그동안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고, 교단이 교단답지 못하다는 세간의 일부 의문에 대해 출가대중이 출가 초발심을 망각하고 실천에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면에서 천막결사는 우리 불교계와 사회에 던지는 큰 울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교의 중흥을 발원한 아홉 선지식의 원력이 부디 신뢰받는 청정승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불교계 전체의 발전으로 회향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또 위례천막결사가 열리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위례신도시 부지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종단적으로 마련한 소중한 성소(聖所)”라며 “부처님오신날 임시 연등을 설치하고 교류했던 원력이 신জে 복원이라는 큰 성과를 냈듯, 위례천막결사는 종단의 포교도량 건립으로 회향돼 신도시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서리를 맞고 달을 빗살아 정진한다는 상월선원의 개원은 이와 시의 정신이 모여 강단 있는 결기를 모아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는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어렵게 시작된 이번 정진을 두고 구업을 짓는 행위로 서로를 편 가르고 편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삼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서로의 마음이 모일 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듯이 상월선원의 참뜻을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한국불교가 한결같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지”고 당부했다.

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어렵게 시작된 이번 정진을 두고 구업을 짓는 행위로 서로를 편 가르고 편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삼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서로의 마음이 모일 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듯이 상월선원의 참뜻을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한국불교가 한결같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지”고 당부했다.

불불법에는 결사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지난여름 다진 다리 회복이 더뎠던 결국 불참하게 된 상월선원 선덕 정묵 스님도 참석했다. 정묵 스님은 “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부득이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스님은 이어 “상월선원 대중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정진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진심에서 우러난 정진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무탈하게 회향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발원문에서 “오늘 이 특별한 불불법회를 시작으로 상월선원 대중은 부처님 지혜를 증득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 땅 곳곳에 새로운 불교의 등불이 피어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화합이 이뤄지고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불불법에 이어 결사 대중들은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직접 친필로 작성한 상월선원 현판 개막식도 진행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중앙신도회·포교사단도 위례천막결사 동참

이기흥 회장·방창덕 단장 뜻 밝혀
단체의전 수렴해 시기·방법 결정

조계종 재가신도단체와 포교단체 두 축인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이 위례천막결사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와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이 11월1일부터 동안 기간 동안 90일 정진에 돌입하는 위례천막결사의 외호대중을 지켰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2020년 도쿄



이기흥 회장



방창덕 단장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음에도 사부대중의 일원이자 재가불자로서 위례천

막결사 정진 동참을 첫 번째로 신청했다. 이 회장은 “바쁜 일상에 쫓기지만 재가불자로서 예전부터 치열한 정진을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며 “위례천막결사가 시절인연이자 선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1월말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 위례천막결사 정진 참여 시기와 대종의 규모, 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좌스님 지도로 태백산 도성암에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닦던 구참자이기도

한 방창덕 포교사단장 역시 전국 각지에서 전법에 매진하는 포교사들의 동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방 단장은 “(이번 위례천막결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스님들을 외호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이 정해지면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위례천막결사 동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방 단장이 위례천막결사에 적극적인 외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한 국불교를 위한 스님들의 결연함 때문이다. 그 결연함과 원력이 전법과 포교로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2019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순례연수

원명 스님과 함께하는

파키스탄 순례 9일

“

부다의 제자 나선비구를 만난 미란다왕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

총무원장스님 파키스탄 공식방문
마라난타스님 고향 - 공식행사 참석

교육일정

2019년 11월 16일(토) ~ 11월 24일(일) 8박9일
(음력 10월 20일 ~ 28일)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지도법사

원명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동참금

365만원

입금계좌

농협 301-0720-0111-71 예금주: 성산항공

구비서류

여권사본(출발일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야 함)
승려증 사본

주요지역

탁실라, 페샤와르, 라호르 등 간다라 불교유적지와 훈자 지역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관

(주)성산여행사

접수 및 문의

02)720-0111

※ 상세한 일정은 여행사에 문의바랍니다.